

無文土器片과 함께 흩어진 石劍破片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兩者의 關係를 說明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註

- ① 澤俊一「溶范出土の二遺蹟」考古學 八十四
- ② 「韓國先史遺蹟遺物地名表」

貞元二十年銘

新羅銅鐘의 鐵索과 鐵壺

黃 壽 永

一九四八年秋 江原道 襄陽郡 西面 米川里 禪林寺址에서 木器斫는 사람들의 손으로 偶然히 發見되었다가 一九五一年初에 五台山 月精寺와 더불어 戰災로 破碎된 이 梵鐘은 解放後 最優의 埋藏物로서 戰亡文化財의 首位에 두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이 鐘과 적지않은 因緣이 있어 오직 一回만의 學的 調査를 擔當한 바 있었고 戰災後에도 殘片의 收拾과 出土 現場의 調査를 通하여 痛恨과 愛惜을 不禁한 바 있었다. 이 곳에 紹介하는 一點은 이 梵鐘에 隨伴된 遺品으로서 一은 鐘頭에 結索되어 있었고 他一은 分離된 채 發見되었으니 元來 鐘下 地中에 藏置되어 있었다고 推定되는 것이다. 前者는 火魔에도 融解되지 않고 原形을 남기고 있어 鐘片과 더불어 國立博物館에 運搬되었으며 後者는 銅鐘과 더불어 一同寺址에서 月精寺로 運搬되어 短期 縣架되었던 鐘口 直下에 埋藏되어 있어 多幸히 戰災를 免하였다고 傳聞하였으나 그 後 行方을 모르게 되었다. 以上 兩品은 모두 羅代의 製作으로 推定되는 바 梵鐘附屬의 高古한 資料로서 한층 貴重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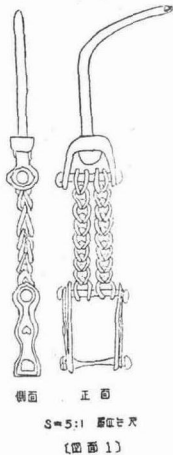
第二卷 第十二號 通卷十七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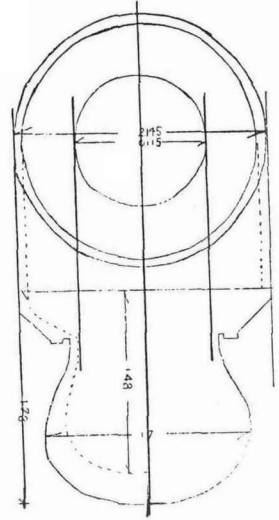
二

鐵索은 銅鐘을 縣架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實測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四部로 結構되었다. 最下部는 上下 鐵棒間에 各各 二枚의 鐵板片(外面片에는 透刻된 杏葉文이 있다)을 끼어서 圓釘으로 固定시켜 元形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 곳에 龍鈕의 背部를 貫通시켜 鐘體를 直接 縣垂케 하였으며 그 위에는 各 九駒의 鐵環을 連結한 二條의 帶鎖가 길게 만들어져서 方框上部에서 連結되었다. 다음에 이 雙條連鎖의 上端을 鐵棒 一本으로 貫通시키고 그 兩端을 圓形 鐵環으로 固定하였으며 그 以上에는 一本의 긴 鐵棒을 이 圓形鐵環 頂部에서 連結시켰다. 다시 이 長棒尖端에는 一孔이 있어서 木部를 貫通시킨 후 鐵釘같은 것을 插入하여 安定케 하였던 듯 하다. 이와 같은 新羅梵鐘의 懸架를 위하여 만들어진 鐵索 ①의 出土는 初有의 일이라 하겠는데 年代는 銅鐘(貞元二十年 新羅 哀莊王五年 西紀八〇四年)과 同時로 推定되며 發見時에는 鐘體에 裝置되어 있었다. 全體에 赤褐鏽가 덮여 있었으나 腐蝕度는 甚하지 않은 듯 하여서 出土後 그대로 再使用하였던 것이다. 全長은 六七cm로서 鐘全高 一m二二cm에 比하여 約一·一·八二로서 過長함이 注目되는 바 이것은 音響이나 懸架方法과도 關係될 것이다.

三

鐵壺 一個는 梵鐘出土에 앞서서 그 發見地點으로부터 五十m以上 떨어진 同一寺址 ②에서 發掘되었다고 한다. (銅鐘의 發見者인 宋在天氏부터 聽取) 그리하여 一九五〇年 一月上旬 筆者가 月精寺에서 처음으로 調査할 때에는 이미 鐘下에 埋藏되어 그 口緣部만이 地表에 露出되고 있었으므로 다시 發掘하여 그 全貌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全高五四cm의 두꺼운 圓底形器로서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口緣은 擴大되어 外徑 六五cm 임에 對하여 壺口는 內狹되어서 外徑의 約半인 三五cm밖에





鐵製圓底壺形器(圖面2)
S=10:1 單位는 尺

아니 된다. 胴
徑은 五·一cm
이며 內底面
부터 內緣까
지 三·七cm 外
緣까지 四·五
cm 이므로 下
底部の 두께
는 一·〇cm 나

된다. 이같은 타구(唾貝) 모양의 異形器는 처음보는 遺例인 바 鍾口의 內徑이 六〇cm 임에 對하여 이 鐵器의 外緣徑이 六五cm 임에서 裝置時의 上下規模 卽 鍾口와 鐵壺外周緣이 거의 適合된다고 할 것이다. 이 鐵器는 梵鐘과 同一地點에서의 一括品은 아니므로 이와같이 銅鐘과 直結시켜 考察한은 一段의 用意을 必要로 할 것이나 銅鐘을 懸架하고 그 直下에 金屬 또는 土製의 壺形器를 埋置한은 後世까지 傳承되어 오고 있는 遺法 ③ 임에 비추어 筆者는 月精寺로 移懸當時에 僧侶의 손으로 이와같이 裝置된 바가 또한 古來의 遺法을 따른 것이라고 解釋하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鐵器는 銅鐘이나 上記한 鐵索과 거의 同時에 鑄造된 것으로 推定하려는 바이다.

四

以上과 같이 銅鐘 鑄成에 따라서 同時作으로 생각되는 銅鐘 上下에 裝置된 附屬具 二點이 薄命悲運의 新羅梵鐘과 같이 收拾되었음은 當代에 있어서의 梵鐘의 非常한 發達相과 그 懸架打鳴과 音響管制를 위한 遺法을 傳하는 資料라고 할 것이다. 新羅梵鐘으로서 國內에 現存하는 二口인 五臺山 上院寺銅鐘 ④ 이나 慶州의 聖德大王神鐘이 모두 原位置에서 遠近地點으로 移動되었고 同代의 在日銅鐘 또한 蒼海를 건너 搬出되었던 經緯에 비추어서 모두 이와같은 附屬具와 遺法을 거의 喪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新出土의 禪林寺址鐘은 現場에서 오랫동안 埋藏되므로써 도리어 이와같은 遺品은 伴出하였음은 多幸이라 할 것이다. 아마도

麗末頃 ⑤ 猖獗하던 倭寇의 上陸을 當하여 그들의 으뜸가는 掠奪目標인 銅鐘의 安全을 期하고자 地下에 藏置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같은 危急時에 木炭을 鐘周圍에 넣으므로써 保存을 念願하던 先人의 深慮가 追慕되는 바이다. 끝으로 月精寺廢墟에서 收拾되어 文教部의 配慮로 國立博物館에 收藏케된 同鐘의 破片內容은 別表와 같다.

- 破片 (單位 cm)
- 1、鐘全體部分의 1/3에 該當되는 바 乳廓一區座가 完全하고 他乳廓部는 若干있음 飛天像은 구부러졌으나 거의 完全하며 上下帶頂上 一部分으로 殘存 (縱 九三、橫 六八)
 - 2、內面의 銘文이 大體로 殘存……第一行에 五字缺、第二行에 二字缺、(縱五五、橫五〇)
 - 3、撞座 下帶一部分殘存 (縱 四四、橫 三六)
 - 4、鍾乳六個、乳廓과 上帶頂上二部分 (縱 三六、橫 二五)
 - 5、鍾乳三個、乳廓飛天一部分 (縱 三〇、橫 二六)
 - 6、內面銘文四字 下帶一部 (縱 三四、橫 二〇、五)
 - 7、胴體一部 (縱 三八、橫 一一)
 - 8、飛天部若干 (縱 三一、橫 一四)
 - 9、鍾乳二個와 上帶一部 (縱 一六、橫 一六)
 - 10、鍾乳三個와 上帶一部 (縱 一六·五、橫 一一)
 - 11、鍾乳一個와 乳廓一部 (縱 二〇 橫 九)
 - 12、上帶 乳廓一部分 (縱 二二、橫 一一·五)
 - 13、乳廓一部 (縱 一一·五、橫 九)
 - 14、胴體一部 (縱 二〇、橫 一一)
 - 15、胴體一部 (縱 二〇、橫 一一)
 - 16、鍾乳一個와 乳廓一部 (縱 一七、橫 九)
 - 17、鍾乳一個와 乳廓一部 (縱 一四、橫 八)
 - 18、飛天像一部 (縱 一一·五、橫 一一)
 - 19、胴體一部 (縱 一七、橫 九·五)
 - 20、胴體一部 (縱 一〇·五、橫 九)

- 21、飛天像一部(縱一六、橫六)
- 22、胴體一部(縱一四・五、橫八・五)
- 23、胴體一部(縱一四、橫一〇)
- 24、胴體一部(縱一二、橫七)
- 25、胴體一部(縱一一、橫七・五)
- 26、胴體一部(縱一一、橫八)
- 27、災害極甚部(不明)(縱五一、橫三六)
- 28、頂上에 龍紐의 部分(縱六・二、橫七)
- 29、鐵製縣索完存(總長五八、幅一一、縣索長三六・五)

註

- ① 現存最古의 在銘鐘인 五臺山、上院寺鐘에도 鐵製方框과 連鎖로서 結構된 鐵索이 달려있어 注目된다.
- ② 이 鐵壺의 發見地點은 후시 鍾閣址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銅鍾을 埋藏할 때 이 鐵壺만은 原位置에 남겨두지 않았을까 한다.
- ③ 鍾下에 陶壺가 埋藏되어 있는 現存例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忠南 禮山郡 香泉寺銅鍾(洪思俊氏談)
서울 安岩洞 開運寺銅鍾
以上은 모두 李朝下代의 鑄鐘이다. 筆者가 目擊한 日本의 遺例로서는 東京都 武藏野 深大寺銅鍾下에 鐵金形이 裝置되고 그 위에 多禮鐵蓋가 덮여 있었다.
- ④ 五臺山 上院寺鐘은 李朝睿宗元年 西紀一四六九年에 慶北安東의 樓門으로부터 移懸된 것이다.
拙稿·「五臺山 上院寺銅鐘의 搬移事實」(歷史學報)所載)
⑤ 禪林寺址 隣近部落 古老에 의하면 이것은 「松都末」(高麗末代)까지 存續하였다는 口傳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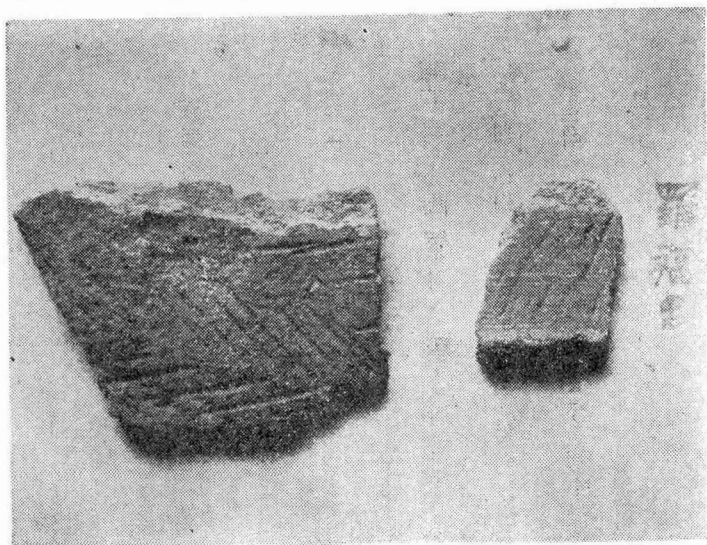
扶餘 羅福里의 櫛文土器

金 元 龍

扶餘 羅福里는 石器散布地에서 有名하며 磨製石劍、石鏃、半月形石刀

第一卷 第十二號 通卷十七號

및 無文土器片들이 數없이 採集되고 있다. 그런데 國立博物館所藏 土器片 中에 二片의 羅福里出土 櫛文土器가 있다. 二片 모두 黃褐色 胎土로서 砂粒이 섞여 있고 두께는 〇・七cm、表面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는데 大片에서는 陰刻한 것이 아니고 骨片 또는 貝殼緣邊같은 것으로 누르면서 陰線을 나타낸 것이고 小片도 마찬가지로 施文後에 表面을 손으로 문지르고 지나가 文樣이 희미해지고 있다.



櫛文土器는 無文土器와 別系統의 土器며 두 遺蹟 사이에 根本的으로 地域的인 相互隔離가 看取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仔細히 檢討하면 이 두 土器가 石器時代末期에 서로 接觸을 始作해 櫛文土器遺蹟에서 無文土器가 나오고 無文土器遺蹟에서 櫛文土器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無文土器遺蹟에서 發見되는 櫛文土器片은 반드시 여기 보는 따위의 魚骨文뿐이며 典型的인 櫛文土器遺蹟에서 發見되는 點文土器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石器時代末期에 와서는 이러한 魚骨文만이 남아 있고 點文系土器는 消滅했던 모양이다.